

글로벌 다문화시대의 타이완 원주민족 현황과 정책에 대한 고찰*



손영기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교수)
(syk52@hanmail.net)



〈출처: <http://www.dmtip.gov.tw/Index.aspx>〉

I. 들어가며

중국 본토에 사는 한족들이 타이완 사회의 주체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섬의 주인은 원주민족(原住民族·Indigenous Peoples)이었다. 이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고산족(高山族)과 평지에 거주하는 평포족(平埔族)으로 구분하였으나, 명대(明代) 시기에 중국 동해 연안의 복건성(福建省), 광둥성(廣東省) 사람들이 타이완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평지에 사는 원주민족은 한족에게 동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명대(明代)에 타이완에 거주하는 한족의 세력이 확장되고, 청대(清代) 강희제 이후 100여 년 간의 통치과정을 거치

*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과제번호:NRF-2010-413-B00023)에 의해 지원된 것임.

면서 타이완 섬에는 원주민족보다 한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¹⁾

19세기 말 일본 강점시기 때에 타이완 총독부에서는 타이완 국민들을 일본인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황민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원주민족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지만, 원주민족과 한족을 격리시켜 원주민족 각각의 고유한 문화는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복이후 국민당 정부시기에는 한문화(漢文化)를 중심으로 하는 동화정책 및 한족과의 통혼으로 인하여 평지에 사는 원주민족 대부분은 한족사회로 동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²⁾ 그러다가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됨으로써 그 동안 국민당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원주민들은 자기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정치적 투쟁을 한 결과로 1994년부터 고산족이라는 명칭을 바꿔 원주민(原住民)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1997년 이후부터는 다시 원주민족(原住民族)으로 개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96년 타이완 정부는 행정원 원주민위원회(2002년 행정원원주민족위원회(行政院原住民族委員會)로 개칭됨)를 설립하고, 이어 1997년 제4차 개정 헌법 제10조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1998년 원주민족교육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 3월 18일,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民進黨)의 천수이볜(陳水扁) 후보가 당선되면서 1999년 '원주민족과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결과로 2001년 원주민신분법(原住民身分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2005년에 제정된 원주민족기본법(原住民族基本法) 제4조에서는 원주민에게 자치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였다.³⁾

현재 타이완에는 기존의 9개 원주민족⁴⁾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원주민족이 타이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들 원주민족은 전국 산간지역 일대 30여개의 향(鄉) 및 평야 지역 25개의 향(鄉), 진(鎮), 시(市)에 거주하고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타이완 원주민족의 인구는 전체 인구 약 2300만 명 중 50만 명 정도로 총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다.⁵⁾ 중국 본토에서 참담한 실패를 겪고 1949년 12월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온 이후 오랫동안 배타적인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인해 타이완 원주민족은 정치, 경제, 문화방면 등에서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원주민족의 정치적 권리가 크게 향상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타이완 원주민족의 분류 현황을 시대별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통치 시기별로 구분하여 원주민족의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이완 원주민족과 관련된 서적,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기초로 삼아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학술적 가치의 논문이기 보다는 타이완 원주민족의 현황과 정책에 대한 소개 성격의 논문임을 밝힌다.

II. 타이완 원주민족의 개념 및 시대별 현황

1. 원주민족의 개념

타이완 원주민족은 주로 고산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총칭하는 말이다. 한대(漢代) 문헌에 타이완과 중국 본토 복건성(福建省) 산지족을 '山夷'로 기술한 바 있고,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통치할 때 (1895~1945년) 타이완 섬이 자국의 다키아코(高砂) 지역과 흡사하다 하여 고산족을 '高砂'족으로 불렀다. 그 이후 1945년 중국이 타이완을 다시 찾으면서 이들 소수민족을 통칭하여 고산족 내지 고산 9족이라 하였다. 1980년대부터 타이완 사회 내에 일기 시작한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원주민족 또한 자신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격렬하게 운동을 전개한 결과 1994년 타이완 정부는 고산족이라는 명칭 대신에 원주민으로 바꿔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1997년 이후부터는 원주민을 원주민족으로 다시 바꿔 사용하고 있다.⁶⁾

2. 원주민족의 시대별 현황

현재 타이완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족은 약 5000년 전에 이미 이 섬의 각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⁷⁾ 하지만 17~18세기 이후 중국 본토에서 한족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살아온 터전을 잃게 되며 아울러 고유한 전통문화, 언어 등이 한족으로 동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시대별 흐름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불렀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조 시대(1644~1911년)

청조(淸朝)에는 타이완 원주민족 모두를 '번족(番族)'⁸⁾이라 통칭하여 불렀고, 거주지역

1) 김정호, "타이완의 다문화교육과 사회과교육" - 초등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권 2호, 2010, 156쪽.

2) 김정호, "타이완의 다문화교육과 사회과교육" - 초등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권 2호, 2010, 156쪽.

3) <http://zh.wikipedia.org/wiki/%E8%87%BA%E7%81%A3%E5%8E%9F%E4%BD%8F%E6%B0%91> ?基百科, 自由的百科全? (검색일: 2012. 1. 9)

4) 아미족(阿美族/Pangcah), 배만족(排灣族/Paiwan), 태아족(泰雅族/Atayal), 포농족(布農族/Bunun), 노개족(魯凱族/Rukai), 비남족(卑南族/Puyuma), 추족(鄒族/Tsou), 새하족(賽夏族/Saysiat), 달오족(達悟族/Yami) 등이다.

5) <http://zh.wikipedia.org/wiki/%E8%87%BA%E7%81%A3%E5%8E%9F%E4%BD%8F%E6%B0%91> ?基百科, 自由的百科全? (검색일: 2012. 1. 9)

6) 이인택, "타이완 원주민 신화의 유형별 분석" - 태아족(泰雅族), 포농족(布農族), 아미족(阿美族) 신화를 중심으로 -, 『동북아문화연구』 제28집, 2011, 각주 1) 재인용.

7) 김영진, 『대만의 역사』 (서울:지영사, 2001), 24쪽.

8) 번족(番族) 내지 번인(番人)은 중국 변방의 종족을 의미하며, 청대(淸代) 공식문서에 타이완 원주민을 '番'이라는 글자를 사용해 지칭했다. 따라서 타이완 원주민은 번인(番人), 그들이 이룬 부락은 번사(番社)와 같은 식이다(민정기, "청말 점석재화보(點石齋畫報)가 보여주는 동아시아 세력 관계 재편 속 대만 원주민 형상", 『아시아문화』 제26호, 2010, 55쪽).

에 따라 동번(東番), 서번(西番), 남번(南番), 북번(北番)으로 나누었고, 또 지형에 따라 고산번(高山番)과 평포번(平埔番)으로 구분하였으며, 문명의 정도와 청 정부와의 친소(親疎) 관계에 따라 생번(生番), 화번(化番), 숙번(熟番)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⁹⁾

위 내용을 정리하면, 청초 때에 타이완 원주민족을 숙번(熟番)과 생번(生番)으로, 그리고 양자 사이에 화번(化番)을 두어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숙번(熟番)은 평포번(平埔番) 혹은 평포숙번(平埔熟番)에 해당하는 원주민족으로써 평야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로 농경에 종사하고 청 정부에 납세하는 등 이미 상당히 한(漢)문화에 동화된 종족인 반면에 생번은 '날야만인'이라 하여 대부분 고산번(高山番)에 해당하는 종족으로써 청 정부에 납세하지 않고 산악 지대 등 벽지에 살며 자기들의 언어와 전통 문화를 유지하며 살았다.¹⁰⁾ 지금도 이들은 한족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였고, 서로간의 왕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같은 고산족 일지라도 각 민족마다 생활풍습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있다.¹¹⁾

2) 일본 식민지시대(1895~ 1945년)

일본이 타이완을 통치한 이후, 타이완 총독부는 여전히 원주민족을 숙번(熟番)과 생번(生番)으로 혹은 평포번(平埔番)과 고산번(高山番)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단지 번(番)자를 족(族)자로 고쳤을 뿐이다.¹²⁾ 반면에 다수의 일본학자들은 여러 차례의 현지 조사를 통하여 타이완 원주민족을 연구하면서 각 민족별로 분류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98년 일본 인류학자 이능가구(伊能嘉矩)는 처음으로 타이완 원주민족을 지역분포와 민족의 특성에 따라 '四群八族十一部(사군팔족십일부)'로 구분하여 원주민족의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그 이후 1900년에 이능가구(伊能嘉矩)와 속야전지승(粟野傳之丞)이 공저로 출판한 『臺灣蕃人事情(대만번인사정)』에서는 원주민족의 언어와 풍속·습관 등에 근거하여 태아족(泰雅族), 포농족(布農族), 추족(雛族), 배만족(排灣族), 택리선족(澤利先族), 노개족(魯凱族), 표마족(漂馬), 아미족(阿美族) 등 8개 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조거룡장(鳥居龍藏)은 1896년부터 1900년까지 4차례 타이완 현지 조사를 토대로 『홍두서토속 조사보고서(紅頭嶼土俗調查報告書)』(1902년)를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배만(排灣), 노

개(魯凱), 비남(卑南), 아미(阿眉), 아리산(阿里山), 포농(布農), 경면(鯨面), 포리사(布里社), 평포(平埔) 등 9개 민족으로 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민족 별로 거주하는 지역과 언어문화, 전통 풍속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외에 이능가구(伊能嘉矩)의 『대만번정지(臺灣蕃政誌)』(1904년), 『대만문화지(臺灣文化志)』(1928년)와 삼축지조(森丑之助)의 『대만번족지(臺灣蕃族志)』(1917년) 등이 출판되었고,¹³⁾ 이들의 연구는 많은 후학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30년대 이후, 이천자지장(移川子之藏)은 『일본지리대계(日本地理大系)』(1930년)내의 대만편 "대만, 토속, 인종"이라는 글에서 타이완 원주민족을 총 10족으로 분류하였고, 이천자지장(移川子之藏)·궁본여인(宮本延人)·마연동일(馬淵東一)은 여러 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 발표한 『대만고사족소속계통지연구(臺灣高砂族所屬系統之研究)』(1935년)에서는 총 9족으로 분류하였다.¹⁴⁾

언어학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타이완 원주민을 분류한 대표적 학자로서는 소천상의(小川尚義)와 천정혜윤(淺井惠倫)이다. 1935년, 소천상의는 『고사족전설집(高砂族傳説集)』에서 언어를 근거로 원주민족을 3류 21족으로 분류하였다.¹⁵⁾ 1939년, 녹야충웅(鹿野忠雄)은 이전 학자들의 분류체계를 기초로 삼아서 원주민족을 족(族), 아족(亞族), 군(群), 사(社)로 구분하였다. 즉, 족(族)에는 태아, 새하, 포농, 추, 배만, 비남, 아미, 아족(亞族)으로는 태아족(태아아족, 새덕아극족), 추족(북추아족, 남추아족), 배만족(노개아족, 배만아족, 사잡라잡아족) 등으로 분류하였다.¹⁶⁾

따라서 일본 학자들의 타이완 원주민족에 대한 연구는 거주지역의 분포이외에도 언어, 문화차이, 사회제도¹⁷⁾ 등을 중요시 여기면서 분류하였다. 그리고 타이완총독부에서는 이러한 원주민족의 분류체계를 기초로 삼아 총 9개의 고산족으로 분류하여 인정하였다. 광복이후 타이완 정부 및 학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3) 광복 이후부터 현재(1945년~ 현재)

광복이후 타이완(中華民國)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민당 정부는 원주민족을 고산족(高山族)·산포(山胞)·산지동포(山地同胞) 등으로 불렀다.¹⁸⁾

1954년 2월 9일 국민당 정부는 '부민4자호(富民4子號) 11197호령'에서 '대만성산지신분

9) <http://www.kepu.com.cn/gb/civilization/nation/feeling/fee1702.html> (검색일: 2012. 1. 31)

10) 민정기, "청말 점석채화보(點石齋畫報)가 보여주는 동아시아 세력 관계 재편 속 대만 원주민 형상", 『아시아문화』 제26호, 2010, 55쪽.

11) 예컨대, 배만족(排灣族)과 노개족(魯凱族)은 계급사회(두목, 귀족, 용사, 평민)로서 고산족 9개 부족 가운데 비교적 특수한 사회구조 형태를 이루고 있다. 두 종족의 모든 토지는 두목과 귀족 소유로 토지의 경작이나 어로? 수렵은 모두 소작인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소작인들은 조세 납부의 의무를 지낸다. 그러나 두목의 지위 승계에 있어서 배만족(排灣族)은 남녀에게 관계없이 첫째 자식에 의한 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해 노개족(魯凱族)은 남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김영신, 『대만의 역사』 (서울:지영사, 2001), 32쪽).

12) 공봉진, "중국 '민족식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65쪽.

13) 王新天·?春明, "?于台?原住民?究的????", 『西民族?究』?第87期, 2007, p.31;

<http://zh.wikipedia.org/wiki/%E8%87%BA%E7%81%A3%E5%8E%9F%E4%BD%8F%E6%B0%91> ?基百科. 自由的百科全? (검색일: 2012. 1. 9)

14) 공봉진, "대만 원주민족의 正名運動", 『中國學』 第28輯, 2007, 482쪽.

15) 공봉진, "대만 원주민족의 正名運動", 『中國學』 第28輯, 2007, 각주 21) 재인용.

16) 공봉진, "대만 원주민족의 正名運動", 『中國學』 第28輯, 2007, 각주 22) 재인용.

17) 예컨대, 같은 고산민족일지라도 그 사회제도에 따라 모계사회에 속하는 아미족(阿美族)과 부계사회에 속하는 포농족(布農族)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18) 다마타 히사오 외 (저) 원정식 외 (역) 『중국소수민족입문』 (서울: 현학사, 2006), 274쪽.

인정표준(臺灣省山地身分認定標準)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 법에서 정한 산지동포의 범위는 “원적이 산지행정구역내에 있고, 본인 또는 부계직계친속 이어야 하고, 광복 전 일제시대 호적부에 고사족 혹은 고산족으로 기재된 자는 산지동포라 칭한다.”고 하였다.¹⁹⁾ 또한 산지동포라 부르는 원주민족을 아미족(阿美族), 태아족(泰雅族), 포농족(布農族), 추족(雜族), 노개족(魯凱族), 배만족(排灣族), 비남족(卑南), 달오족(達悟族), 새하족(賽夏族) 등 총 9개 민족으로 분류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민족 정체성 회복의 일환으로 ‘타이완 원주민족 운동’이 일어나 고산족이라는 他稱 대신에 원주민족이라는 自稱이 널리 사용 되었고, 1994년 제3차 개헌 시 고산족에서 원주민으로 바뀌 사용하게 되었고, 1997년 원주민에서 다시 원주민족으로 바뀌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명칭은 타이완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족을 제외한 모든 소수민족을 통칭하는 말이 되었다.²⁰⁾

2000년 3월, 국민당 50년 정권을 종식시키며 총통선거에서 승리한 민진당(民進黨) 천수이벤(陳水扁)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 2001년, 2002년, 2004년 각각 3개 민족²¹⁾이 인정받았고, 2007년 과 2008년에 다시 2개 민족²²⁾이 인정받음으로써 현재 총 14개 원주민족이 타이완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아래 <표 1>과 같다. 또한 타이완의 원주민족 분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주민족의 분포도와 인구 통계도를 인용해 놓았다(그림 1) · <그림 2>.

<표 1> 타이완 원주민족 분류표²³⁾

산지원주민, 평지원주민	평포족
태아족(泰雅; Atayal; Tayal)★	개달가란족(凱達加蘭; Ketagalan)
새하족(賽夏; Saisiyat; Saisiat)★	갈마란족(噶瑪蘭; Kavalan)★
포농족(布農; Bunun)★	도카사족(道卡斯; Taokas)
추족(雜; Tsou; Cou)★	파촉해족(巴則海; Pazeh)
노개족(魯凱; Rukai)★	파폭랍족(巴瀑拉; Papora)
배만족(排灣; Paiwan)★	파포살족(巴布薩; Babuza)
비남족(卑南; Puyume)★	소족(邵; Sao)★
아미족(阿美; Amis; Pangcah)★	화안아족(和安雅; Hoanya)★
달오족(達悟; Tao)★	살기레이족(撒奇萊雅; Sakiraya)★
태로각족(太魯閣; Taroko)★	마카도족(馬卡道; Makatao)
새덕극족(賽德克; Sedi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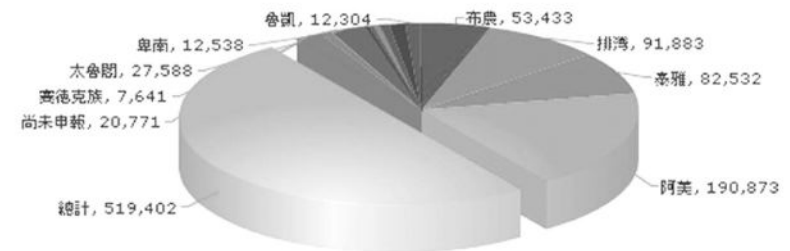
★기호는 현재 타이완 행정원원주민족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원주민족임.

19) 공봉진, 『중국민족의 이해와 재해석』 (경기도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10), 243쪽.
 20) 전광진, 「타이완 원주민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 개발 연구」, 『中語中文學』 制45輯, 2009, 353쪽.
 21) 소족(邵族; 2001), 갈마란족(噶瑪蘭族; 2002), 태로각족(太魯閣族; 2004)
 22) 살기레이족(撒奇萊雅; 2007), 새덕극족(賽德克族; 2008)
 23) ?杰, 『台?原住民族?』, (中國 北京: 台海出版社, 2008), p. 14

<그림 1> 타이완 원주민족의 분포도



<그림 2> 타이완 원주민족의 인구통계도



※위의 <그림1>과 <그림2>는 臺灣行政院原住民族委員會 홈페이지(<http://www.apc.gov.tw/>)를 참조하였음.

Ⅲ. 타이완 원주민족의 정책

타이완의 원주민족은 이 섬의 실질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외부세력들의 통치를 받으며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 특히 1949년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에게 패한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온 직후부터 계엄령을 선포하고 장기집권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국민당 정부가 실시한 ‘山地平地化’ 정책으로 인해 원주민족은 한족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이미 한족문화로 동화되어 거의 사라진 평포족(平埔族)과 국민당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원주민족들은 크게 훼손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격렬하게 투쟁 한 결과로 현재 원주민족은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은 권리를 부여받음과 아울러 자신들의 정체성 또한 찾

아가고 있다. 1996년 타이완 정부는 행정원원주민위원회(2002년 행정원원주민족위원회(行政院原住民族委員會)로 개칭됨)를 설립하고, 이어 1997년 제4차 개정 헌법 제10조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1998년 원주민족교육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2000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民進黨) 천수이벤(陳水扁) 후보가 당선되면서 50년 동안 집권한 국민당을 밀어내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원주민족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원주민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진당 정부는 2001년 1월, 원주민신분법(原住民族身分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그 이후 2005년 원주민족기본법(原住民族基本法)을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치시기별로 구분하여 원주민족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조 시대(1644~1911년)

청조(淸朝) 시대에 들어와 청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처럼 토사(土司)²⁴⁾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지방관을 타이완 원주민족의 부락에 파견하여 통치하는 번사(番社)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번사(番社) 내의 행정이나 한족과의 분쟁 조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관이 원주민을 선발하여 지방관을 보좌하는 토목(土目)과 토목을 보좌하는 통사(通事)를 지방관이 직접 임명하여 관할 하에 두었다.²⁵⁾

18세기 중엽이후 건륭시기(1736~ 1795년) 때에는 중국 복건성(福建省)으로부터 한족 이주가 급증하여 타이완의 개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숙변은 한족으로부터 철기 사용이나 수리 관개 기술 등을 습득하여 벼농사를 시작하였으며, 숙변 중에서는 자제들에게 한족 문화를 가르치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청 정부는 원주민족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족이 번지(番地; 원주민족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개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주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번지에 들어와 개간하는 한족들을 막지 못했고, 원주민족들이 토지를 상실하게 된 중대한 원인으로 한족들이 속이거나 한족 통사(通事)들은 종종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원주민족 토지를 취득하였다.

결국 원주민족의 토지 상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으로 인해 타이완 원주민족과 한족간의 충돌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1766년 원주민족 통치를 전문으로 하는 이번동지(理番同知)가 설치되었으며, 또 각 번사(番社)로부터 선발한 숙변의 성인 남자를 둔정제(屯丁制)에 편성하여 치안 유지를 하도록 하고 그 보수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하지만 토지나 고유한 전통문

화의 상실은 원주민족 사회의 변화를 강요하게 되었다.²⁶⁾ 따라서 이러한 통치 과정을 거쳐 타이완에는 원주민족보다 한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2. 일본 식민지 시대(1895~ 1945년)

타이완 원주민족은 일본의 통치에 대하여 격렬히 저항했지만, 1910년대에 들어 타이완 총독부가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산지를 보류지(保留地)로 만들고 각 부락에 일본인 경찰관을 주재시키는 형태로 원주민족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농업지도, 보건 의료의 보급, 간이학교(蕃童敎育所)에서의 일본어 교육 등을 강요하고 일부 원주민족의 부락을 강제로 이주시키기도 하였다. 또 산악지대의 국유화에 의해 수렵이 대폭 제한되고 타이완 총독부의 행정 명령에 의해 시체의 옥내 매장 등 일부 원주민족의 관습이나 제사문화가 폐지되었다. 이렇듯 원주민족의 종래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켜 일본인으로 동화되도록 강요하였다.²⁷⁾

1930년 대 이러한 타이완 총독부의 통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무장항일운동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발생과 경과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⁸⁾

1930년 10월 7일, 무사(霧社)지역 마혁과사(馬赫坡社)에서 일본경찰 요시무라 카쓰미(吉村克己)과 부근(社)의 총두목인 막나노도(莫那魯道)의 아들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이 사소한 다툼이 확대될까 염려한 막나노도는 다음날 아들과 같이 파출소에 가서 사과하였으나 요시무라 카쓰미(吉村克己)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부에 보고하여 엄벌에 처하겠다고 위협하였다. 10월 10일, 이 소식이 인근에 전해지자 몇몇 청년들이 막나노도에게 10월 27일에 무사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공격하자고 제안하였다. 10월 21일 하과사(荷戈社)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한 6(社)의 두목들은 막나노도를 총지휘관으로 추대하고 거사를 준비할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였다.

1930년 10월 27일 오전, 6(社)의 청년 300명은 막나노도의 인솔하에 세 방면에서 무사 공학교에서 열린 추계운동회에 참가한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파출소와 관청의 무기를 탈취한 후 산중으로 되돌아갔다. 이 사건으로 살해당한 일본인 132명, 부상자가 215명이었으며 일본인으로 오인된 타이완인 2명도 피살되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타이완 총독부에서는 1600명의 군인과 무장경찰 600명을 현지에 파견하고 폭격기와 독가스까지 동원하여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20여 일 동안 타이완 총독부와 완강하게 맞서 저항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막나노도는 자살하였으며, 6(社)의 원주민 1400명 가운데 900명이 살해되었다.

사건이 진화된 직후 타이완 총독부에서는 주도자라는 죄명으로 6(社)의 두목급 10여

24) 토사(土司) 제도는 중국의 중앙 정부가 중국 국내의 소수민족의 토착 지배자들에게 부여하는 관직에 대한 총칭을 일컫는다. 이것은 직접 통치가 어려운 원거리, 오지에 대해 선택한 중세 중국의 간접 통치방식이었다 (<http://ko.wikipedia.org/wiki/토사>; 검색일 2012. 2. 14).

25) 다바타 히사오 외 (저) 원정식 외 (역), 『중국소수민족입문』 (서울: 현학사, 2006), 280쪽.

26) 주완요 (저) 손준식 외 (역), 『대만-아름다운 섬 슬픈역사』 (서울: 신구문화사, 2003); 다바타 히사오 외 (저) 원정식 외 (역), 『중국소수민족입문』 (서울: 현학사, 2006), 280쪽.

27) 다바타 히사오 외 (저) 원정식 외 (역), 『중국소수민족입문』 (서울: 현학사, 2006), 281쪽.

28) 김영진, 『대만의 역사』 (서울: 지영사, 2001), 293쪽.

명을 처형하고 나머지 생존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 이듬해 4월 25일 일본경찰의 사주를 받은 친일파 원주민들이 (사(社)의 원주민들을 습격하여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후 일본정부는 타이완 총독을 포함하여 총무장관, 경무국장, 대중주지사를 모두 면직시켰고 원주민족의 정책을 다시 검토 하게 되었다.

타이완 최대, 최후의 원주민족 항일운동 “무사(霧社)사건”



<출처 <http://blog.daum.net/msh6883/7258845>>

따라서 일제 강점시기 말 일본정부는 일본식 생활을 강조하였지만, 원주민족과 한족을 분리시켜 원주민족의 언어와 고유한 전통 문화는 현존케 하였다.

3. 광복 이후부터 현재(1945년~ 현재)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타이완을 접수한 국민당 정부는 보류지(保留地) 정책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산지의 교통이 불편한 촌락을 산 아래나 평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각 부락의 학교에서는 한어(漢語) 교육을 실시하여 한족으로의 동화를 촉진하였다.

197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의 발전으로 원주민족 부락에 전기 및 수도시설 등이 설치되고, 교통수단 또한 편리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에 한층 더 깊이 편입되어 원주민족의 청년 남녀가 취업, 고등교육의 기회를 찾아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 유실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적응할 수 없어 사회의 저변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원주민족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통치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의

요인 또한 원주민족을 한족으로 동화되도록 내몰았다고 할 수 있다.²⁹⁾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 민주화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와 더불어 타이완 내부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변화가 있었다.

1949년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에게 패한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후퇴한 직후 계엄령을 선포하여 타이완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근 40년 동안 지속되다가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됨으로 인해 그 동안 억눌렸던 원주민족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격렬하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1996년 타이완 정부는 행정원원주민위원회(2002년 행정원원주민족위원회(行政院原住民族委員會)로 개칭됨)를 설립하고, 이어 1997년 제4차 개정 헌법 제10조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1998년 원주민족교육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2001년 원주민신분법에 이어 2005년 원주민족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타이완 원주민족과 관련된 법률을 기초로 삼아 원주민족의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원주민족을 위한 교육정책이다. 1997년 제4차 개정 헌법 제10조³⁰⁾에서는 “국가는 다문화화를 인정하고, 원주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1998년 원주민족교육법(原住民族教育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 제1조³¹⁾에서 “정부는 원주민의 민족교육권을 보장하고, 원주민의 민족교육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어 제2조³²⁾에서는 “원주민은 원주민족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는 다원·평등·존중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원주민족교육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원주민족교육법은 타이완 원주민족의 주체성과 원주민 교육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써 타이완 원주민에게 각종 교육 제도를 통하여 다문화사회에 맞는 사회적 환경과 다문화교육의 이념을 제공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³³⁾

게다가 원주민족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4년 8월에 전면 개정된 원주민족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① 원주민족지역에 공립 유치원을 설립하여 원주민족 자녀들에게 입학할 수 있는 기회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주민자녀에게 학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② 지방정부는 필요시 원주민족학교 및 원주민족교육반을 설립함과 아울러 원주민족 문화를 보호하여야 한다(제11조). ③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원주민족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주민족 학생 수에

29) 다바타 히사오 외 (지) 원정식 외 (역), 『중국소수민족입문』 (서울: 현학사, 2006), 281쪽.

30) 國家肯定多元文化, 積極維護發展原住民族語言及文化.

31) 原住民族教育法 第一條: 根據憲法增修條文第十條之規定, 政府應依原住民之民族意願, 保障原住民之民族教育權, 以發展原住民之民族教育文化, 特制定本法.

32) 原住民族教育法 第二條: 原住民族教育之主體, 政府應本於多元平等, 自主, 尊重之精神, 推展原住民族教育.

33) 김정호, “타이완의 다문화교육과 사회과교육”-초등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권 2호, 2010, 158쪽.

따라 민족교육만을 설립하여야함과 아울러 민족교육 및 일반수업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조). ④ 원주민족 학생이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진학 할 시에 입학의 기회를 보장하며, 학비를 보조하며, 전문대학 이상 4년제 대학에 진학 할 시 학비 및 학업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6조 및 제19조). 이 외에도 원주민족 학생들을 위한 생활 및 학습 지원센터 설립 및 각 대학에 원주민족 발전을 위하여 관련 연구소, 센터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³⁴⁾

둘째, 2000년 3월 18일,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民進黨)의 천수이벤(陳水扁) 후보가 당선된 이후 1999년 당시 '원주민족과 민진당(民進黨) 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결과로 2001년 1월, 원주민의 신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원주민신분법(原住民族身分法)³⁵⁾이 제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타이완 정부의 원주민족에 대한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현재 총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법 제2조에서는 원주민족을 산지원주민과 평지원주민으로 구분하여 광복 전 원적(原籍)과 등기부를 근거로 원주민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 원주민 신분의 취득과 상실, 원주민 신분의 취득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 2005년 2월 5일에 제정된 원주민족기본법(原住民族基本法) 제1조에서는 "원주민족은 기본권리를 가지며, 원주민족 삶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원주민족간의 공존·공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이미 <표 1>에서 언급한 타이완 정부가 인정하는 원주민족들을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원주민족에게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원주민족의 법적지위 및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총 35조로 구성하여 규정하고 있다.

셋째, 1997년 제4차 개헌 시 제10조에서는 "국가는 다문화화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원주민족의 언어와 문화의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였고, 교육·경제·토지·사회복지 등을 보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명시하였다. 그리고 국민대회대표 6인 및 입법원 입법위원(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됨) 8인을 원주민족을 위한 특별의석으로 규정하였다.³⁶⁾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원주민족은 계엄해제 전과 비교할 때 정치적인 면에서 많은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IV. 나가며

앞에서 타이완 원주민족의 개념과 시대별 분류 현황,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타이완의 원주민족은 크게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고산족(高山族)과 평지에 사는 평포족(平?族)으로 나뉘며, 특히 명대(明代)에 타이완에 거주하는 한족의 세력이 확장되고, 청대(清代) 강희제 이후 근 100여 년 간의 통치과정을 거치면서 평포족은 점점 한족사회로 동화된 사람들인 반면에 고산족은 한족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고유한 전통 풍습을 유지해온 사람들이다.³⁷⁾ 이러한 이유로 타이완에는 9개의 고산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고산족은 타이완 섬의 산간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고, 고산족 이외에 평지에 사는 평포족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³⁸⁾

타이완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원주민족을 고산족이라 부르다가 1994년 제3차 개헌 시 고산족이라는 명칭 대신에 원주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1997년 원주민에서 다시 원주민족으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타이완 원주민족에 관한 분류는 일본 강점시기(1895~ 1945년) 일본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7족, 8족, 9족, 10족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었는데, 조거룡장(鳥居龍藏)이 출판한 『홍두서토속조사보고서(紅頭嶼土俗調査報告書)』(1902년)에서 분류한 9개 민족이 타이완 광복이후에도 타이완 원주민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일본이 패망한 이후 1954년 3월 타이완 국민당 정부는 그 당시 고산지역에 살던 아미족, 태이족, 포농족, 추족, 노개족, 배만족, 비남족, 달오족, 새하족 등 9개 민족으로 분류하여 원주민으로 인정하였다. 그 이후 2000년 3월 민진당 천수이벤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소족(2001), 갈마란족(2002), 태로각족(2004), 살기래아족(2007), 갈마란족(2008) 등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현재 총 14개의 원주민족이 존재하게 되었다.

타이완의 원주민족은 이 섬의 실질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외부세력들의 통치를 받으며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 특히 1949년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에게 패한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온 이후 계엄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실시한 '山地平地化' 정책으로 인해 원주민족은 한족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이미 한족문화로 동화되어 거의 사라진 평포족(平?族)과 국민당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원주민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격렬하게 투쟁 한 결과로 1997년 제4차 개정 헌법 시 원주민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내용이 제

34) 김정호, "타이완의 다문화교육과 사회과교육" 초등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권 2호, 2010, 158쪽.

35) 2001년 1월 4일 제정, 2008년 11월 14일 제8조 수정

36) 常本照樹, "先住民族の文化と知的財産の國際的保障", 『知的財産法政策學研究』 Vol. 8, 2005, p. 15

37) 최유화·박가영, "대만 태이족(泰雅族)의 경면문양(面紋樣)과 전통복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12권 4호, 2010, 101쪽.

38) 정봉진, "대만 원주민족의 正名運動", 『中國學』 第28輯, 2007, 495쪽.

10조에 추가된 이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8년 원주민교육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 3월 18일,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民進黨)의 천수이벤(陳水扁) 후보가 당선된 이후 원주민족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더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 원주민신분법(原住民身分法)과 2005년 원주민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타이완 정부의 원주민족에 대한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원주민족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참고문헌

- 공봉진. 2011. 『중국민족의 이해와 재해석』. 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김영신. 2001. 『대만의 역사』. 서울: 지영사.
- 다바타 히사오 외 (저) 원정식 외 (역). 2006. 『중국소수민족입문』. 서울: 현학사.
- 주완요 (저) 손준식 외 (역). 2003. 『대만-아름다운 섬 슬픈역사』. 서울: 신구문화사.
- 공봉진. 2005. “중국 ‘민족식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공봉진. 2007. “대만 원주민족의 正名運動”, 『中國學』 第28輯, 471-501
- 김정호. 2010. “타이완의 다문화교육과 사회과교육”-초등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권 2호, 155-169
- 민정기. 2010. “청말 점석재화보(點石齋畫報)가 보여주는 동아시아 세력 관계 재편 속 대만 원주민 형상”, 『아시아문화』 제26호, 47-81
- 이인택. 2011. “타이완 원주민 신화의 유형별 분석”-태아족(泰雅族), 포농족(布農族), 아미족(阿美族) 신화를 중심으로 -, 『동북아문화연구』 제28집, 19-38
- 전광진. 2009. “타이완 원주민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 개발 연구”, 『中語中文學』 制45輯, 351-388
- 최유화·박가영. 2010. “대만 태아족(泰雅族)의 경면문양(面紋樣)과 전통복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12권 4호, 89-102
- ?杰. 2008. 『台?原住民族?』. 北京: 台海出版社.
- ?建?. 2009. 『台?“原住民”?史?政策?究』. 北京: 社?科?文?出版社.
- 王新天·?春明. 2007 “?于台?原住民?究的????”, 『?西民族?究』 第87期, 30-37

- 常本照樹. 2005. “先住民族の文化と知的財産の國際的保障”, 『知的財産法政策學研究』 Vol. 8, 13-36
- <http://www.dmtip.gov.tw/Index.aspx>
- <http://blog.daum.net/msh6883/7258845>
- <http://www.google.tw/>
- http://www.sinica.edu.tw/main_e.shtml
- <http://ko.wikipedia.org/wiki/토사>; 검색일 2012. 2. 14)
- <http://www.apc.gov.tw/>
- <http://www.ncl.edu.tw/mp.asp?mp=2>
- <http://www.roc-taiwan.or.jp/law/law15.html>
- <http://zh.wikipedia.org/wiki/%E8%87%BA%E7%81%A3%E5%8E%9F%E4%B>
D%8F%E6%B0%91?基百科,自由的百科全?(검색일: 2012. 1. 9)
- <http://www.kepu.com.cn/gb/civilization/nation/feeling/fee1702.html> (검색일: 2012. 1. 31)